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9. 5 통권 제53호

現代經濟研究院

統一經濟

5
1999
제53호

편집자의 글
포용 정책의 開花2

포커스
북한 경제 정책의 특성과 남북한 관계 전망 • 김성윤3

특 집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전망과 남북 경험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 정옥남10
경제 제재 완화의 한반도 주변 정세 파급 효과 • 유호열17
경제 제재 완화가 남북 경험에 미치는 영향 • 김규륜23

경협정보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Ⅲ): 경영 활동 • 황동언31

논 단
대북 투자 사업에 있어서 효과적인 외자 유치 방안 • 박현일44
금강산 관광 외국인 허용의 경제적 예상 효과 • 이등원 · 임희순56
통일 방식에 따른 주택 정책 접근 방향 • 서우석71

북한경제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 과 북한 경제 • 권경복85

해외시각
한반도 냉전 구조에 대한 제언: 해소될 수 있나? • Richard W. Chadwick93

인물초점
독일 통일의 주역들(Ⅰ) - 헬무트 콜: 독일 통일의 선봉장 • 박상봉100

자료
「인민경제계획법」(6장 48조)107

통 권 제53호
등록번호 라-6925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9년 5월 10일
발 행 인 김중웅
편 집 인 정순원
편집위원 김정균 유병규
김선덕 김희성
박태일 황동언
편집주간 홍순덕
제작주간 심재철
편집교열 장은숙
발 행 처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전화 (02)724-4114
F A X (02)730-1770
인 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636-0555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포용 정책의 開花

5 월은 남북 관계가 바쁘게 돌아가는 달이 될 것 같다. 지난 3월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고, 4월에는 그 후속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미국은 사찰 대가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씨감자 가운데 일부를 평양으로 공수하였으며, 5월중 15명 정도의 미 국조사단이 현장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의 농업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민간 사이드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국제옥수수재단은 올해 북한 협동농장에 다수확 옥수수 종자를 파종하기로 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는 10만 톤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 정도의 비료 지원만으로도 21.8만 톤의 식량 증산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획 경제를 한층 강화하는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하였다. 이는 작년에도 개정된 헌법의 개혁 지향적 성격과는 다소 배치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호의 포커스는 “북한 경제 정책의 특성과 남북한 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여기서는 「인민경제계획법」을 대내 결속, 국가 경제의 정상화 및 본격적 개방을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으로 파악하고, 우리 정부의 지속적 포용 정책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향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지적하였다. 특집에서는 금창리 핵사찰 합의의 후속 조치로 예상되는 미국의 대북 경제 재완화의 내용과 그것이 한반도 정세 및 남북 경협에 미칠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논단에서는 “대북 투자 사업에 있어서 효과적인 외자 유치 방안”을 프로젝트 파이낸스, 국제 기구의 공공 차관 및 신디케이트 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금강산 관광 외국인 허용의 경제적 예상 효과”에서는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 외국인 관광 허용시 생산·소득 파급 효과가 각각 4억 달러 및 1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통일 방식에 따른 주택 정책 접근 방향”에서는 통일후 가장 중요한 사회 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인 주택 정책의 적정 방향과 추진 단계·내용을 자멸형·유도형·합의형이라는 통일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편, 북한경제에서는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과 북한 경제”를 실어 최근 북한의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을 분석해보았다. 이밖에 해외시각에서는 채드윅(Chadwick) 하와이대 교수의 논문 “한반도 냉전 구조에 대한 제언: 해소될 수 있나?”를 실었다. 그리고 이번 호부터는 인물초점을 신설하여 독일 통일 주역들의 역할을 8회에 걸쳐 시리즈로 실을 예정인데, 이번 호에서는 헬무트 콜 전 수상 및 주변 인물들의 통일 철학과 사상, 통일 과정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금창리 사찰의 후속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페리보고서의 대북 요구 사항에도 우리 정부의 요구인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북 포용 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진전이 계속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충만해지길 기대해본다.

1999년 5월
편집자